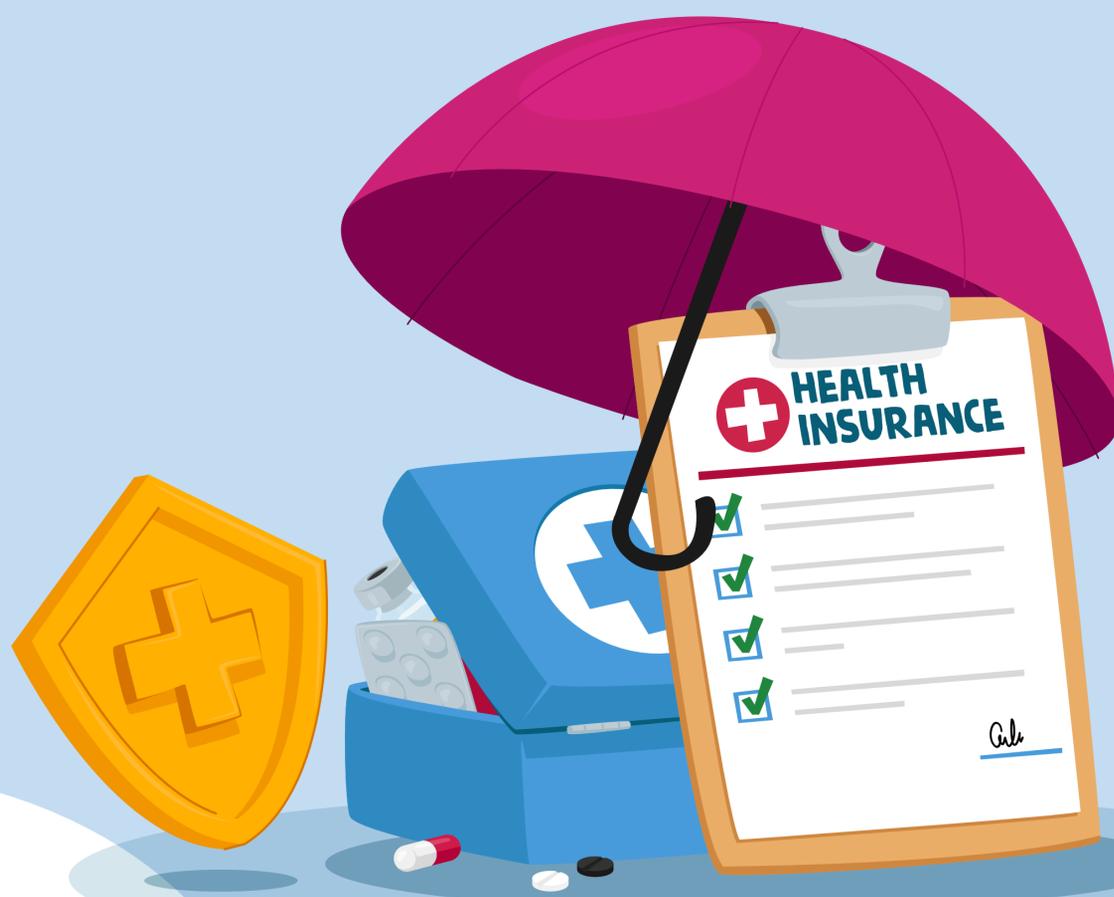


제2의 건강보험인  
**실손의료보험**이  
2021년 7월부터  
새롭게 태어납니다.



# 실손의료보험은

건강보험이 보장하지 않는 의료비를  
보장하는 국민의료지킴이



**건강보험**  
(급여공단부담금)



**실손보험**  
(급여본인부담금  
+ 비급여의료비)

# 실손의료보험

무엇이  
문제인가요?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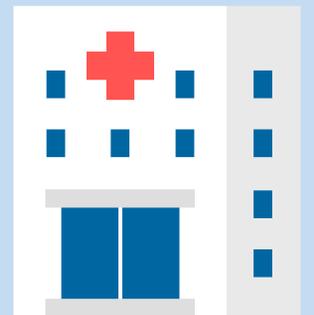
병원가면  
실손보험 있는지  
자꾸 물어요



병원을 안가도  
보험료가  
자꾸 올라요



요즘  
실손보험  
가입하기가  
어려워요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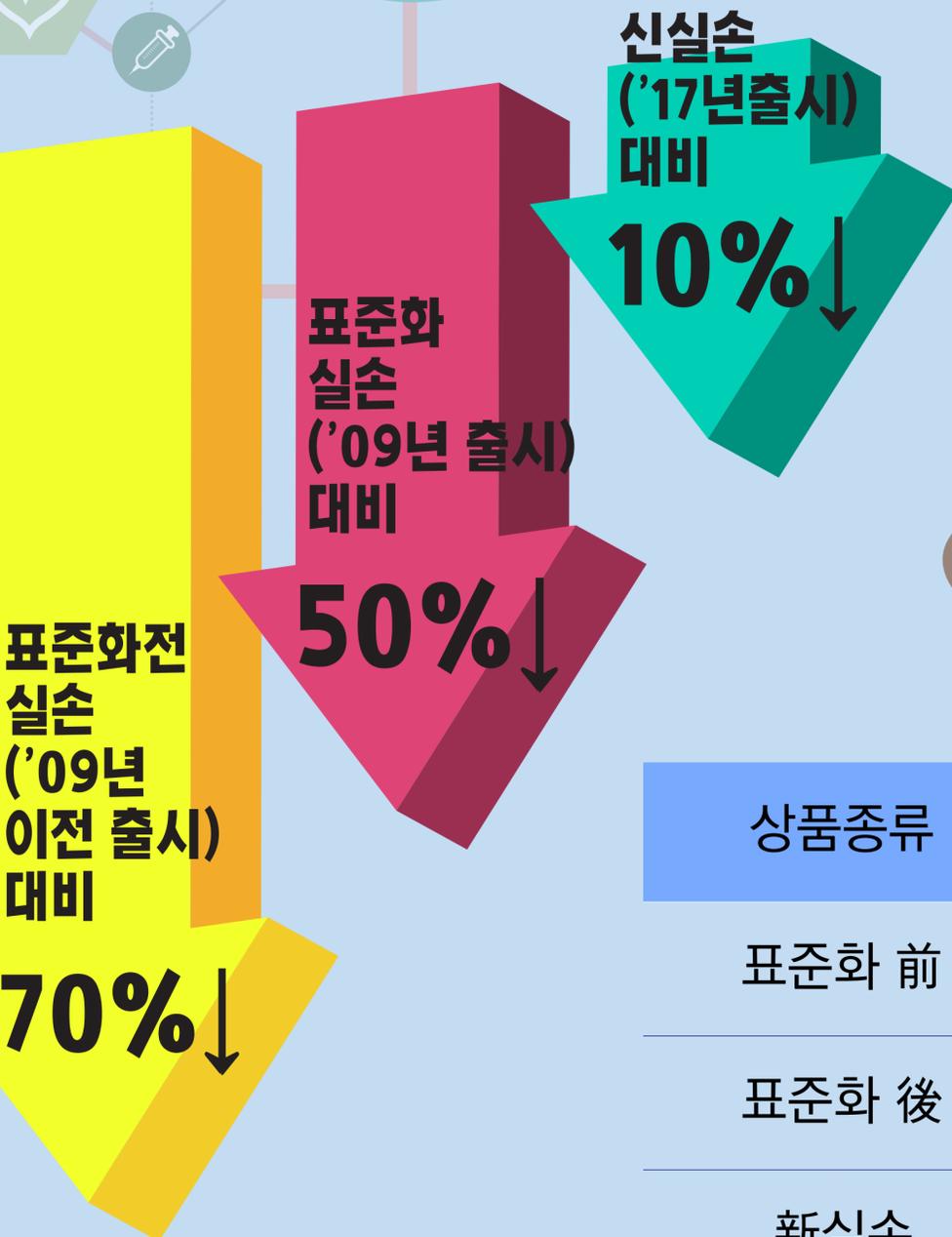
# 실손의료보험이 새롭게 태어납니다.

## 1. 실손보험의 보험료가 대폭 인하 됩니다.

4세대 실손과 기존 실손과의  
40세(남자) 기준 보험료 비교 예시

| 상품종류        | '20 보험료 기준 | 4세대 실손과 비교 |          |
|-------------|------------|------------|----------|
|             |            | 月 보험료 차이   | 年 보험료 차이 |
| 표준화 前       | 36,679     | +25,750    | +309,000 |
| 표준화 後       | 20,710     | +9,781     | +117,372 |
| 新실손         | 12,184     | +1,255     | +15,060  |
| 4세대 실손 (예상) | 10,929     | -          | -        |

\* 상기 예시는 일부사 통계로 보험료 수준을 추정한 것으로 실제 상품 출시 시 보험료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.



※ 적절한 의료이용 유도를 위해 자기부담금과 통원공제금액은 인상

실손의료보험이 새롭게 태어납니다.

## 2. 도수치료 등 비급여는 사용한 만큼 보험료가 할인·할증 됩니다.

| 구분                         | 1등급(할인)        | 2등급(유지)               | 3등급(할증)               | 4등급(할증)                 | 5등급(할증)                 |
|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|
| 할인/할증률                     | -5%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| +100%                 | +200%                   | +300%                   |
| 비급여 지급보험금<br>(평균 지급보험금 대비) | 비급여<br>지급보험금 無 | 100만원 미만<br>(300% 미만) | 150만원 미만<br>(500% 미만) | 300만원 미만<br>(1,000% 미만) | 300만원 이상<br>(1,000% 이상) |
| 가입자 비중                     | 72.9%          | 25.3%                 | 0.8%                  | 0.7%                    | 0.3%                    |



일부 과잉의료자의 할증금액은 대다수 국민에게 할인혜택으로 돌아갑니다.



중증질환자, 고령자 등 의료취약계층은 충분한 치료를 위해 차등제가 적용되지 않습니다.



실손의료보험이 새롭게 태어납니다.

### 3. 보장내용 변경주기는 5년으로 조정됩니다.(기존 15년)



새롭게 보장이 필요한 질환  
→ 신속하게 보장



보장내용이 변경  
→ 기존 가입자 보험혜택은 계속



의료환경변화의 신속한 반영  
→ 실손보험의 지속가능성 제고

# 새로운 **실손의료보험**, 국민건강지킴이로 새롭게 거듭나겠습니다.



비급여 분리  
할인할증  
적용



자기부담금  
조정



실손보험  
보장주기  
조정



가입자간  
형평성  
제고



실손보험료  
인하



실손보험  
지속성  
제고

